
주요국 예산안 - 독일

2018. 3.

연구책임자

윤성주 센터장

김우현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엄동욱 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1. 경제 및 재정전망	1
가. 경제전망	1
나. 재정전망	3
2. 예산기조	4
3. 예산안 내용	6
가. 재정수입	6
나. 재정지출	7
4. 주요 재정정책	11
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11
나. 재정건전화	12
다. 에너지 정책	14
라. 지방재정 지원	15

독 일

- FY2018: 2018년 1월 ~ 2018년 12월
- FY2018 예산편성 일지
 - (2017. 3.15) FY2018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한 기본수치 내각 결의
 - (2017. 6.28) FY2018 예산안 및 FY2017-21년 중기재정계획안 발표
- 출처
 - 재무부: Haushaltsgesetz 2018, 2016.7
Finanzplan des Bundes 2017 bis 2021, 2016. 7
Finanzbericht 2018, 2016.8
 - 연방은행: Monatsbericht Dezember 2017, 2016.12
- 환율: 1유로 = 약 1,276.39원(2017년도 평균, 매매기준율)
- 경제규모: 2016년 경상GDP 4조 1,939억 달러
- GDP 대비 수출입 비율(명목): 2017년 기준 84.3%(2016년 한국은 77.7%)
- 인구: 약 8,271만명(2017년 기준)

□ GDP 및 인구 추이: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18년 실질 GDP 성장률 2.5%, 실업률은 5.3%,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각각 집계됨
- (재정전망) 독일은 긍정적인 경제추세와 낮은 이자비용으로 낙관적인 재정상황 지속될 전망이며, GDP 대비 국가채무는 '18년 63.25%, '19년 60.5%로 전망

□ 예산기조

- 교육 및 연구, 안보, 교통인프라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경제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화 프로그램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계획

□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 (재정수입) FY2018년 연방정부의 총재정수입은 '17년 대비 2.5% 증가한 3,375억 유로 전망
- (재정지출) FY2018 예산안의 총재정지출은 '17년 대비 2.5% 증가한 3,375억 유로로 편성

□ 주요 재정정책

- (교육·연구) 첨단기술발전, 응용과학연구, 우수대학육성, 직업훈련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교육연구 예산은 '16년 이후 GDP 대비 3%를 차지함
- (재정건전화) '17년 안정화 프로그램에서는 통화정책, 난민, 재정관리, 교육·인프라 등에 대한 내용 제시하였고, 안정화위원회 회의에서는 동독의 재정건전화 정책에 대해 언급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2017년 12월 연방은행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18년 실질 GDP 성장률 2.5%, 실업률은 5.3%,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각각 집계됨
 - (경제전망) 실질 GDP 성장률은 '17년 2.6%, '18년 2.5%, '19년 1.7%로 전망
 - 세계경제 호황으로 산업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노동시장의 호황으로 인한 민간소비 및 주택투자 또한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
 - 연방은행은 현재 독일의 강건한 경제성장이 성숙단계로 진입했다고 전망하였고, 인구통계학적 제약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성장속도는 중기적으로 점차 더딜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률) 원유가격 상승 등으로 '1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전망
 - (재정전망) 경제호황 및 이자지출 하락으로 '18년 재정수지 흑자는 GDP 대비 1%로 전망
 - 하지만, 새로운 정부의 재정책대로 인해 향후 예산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위험요인) 유가상승,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세계보호무역주의 등을 위험요인으로 지적

<표 1> 경제전망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실질 GDP 성장률	1.9	2.6	2.5	1.7
실업률	6.1	5.7	5.3	5.1
소비자물가 상승률	0.4	1.7	1.6	1.7

자료: 연방은행, *Outlook for the German economy*, 2017.12.14

<참고 1> 2018년 경제전망보고서(Jahreswirtschaftsbericht 2018)¹⁾

- (배경) 연방정부는 1967년 제정된 경제안정 및 성장촉진법²⁾에 따라 동 보고서를 매년 하위과 상위에 제출
- (경제전망) '18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0.2%p 상승한 2.4%, 실업률은 고용자 수의 증가(49만명)로 '17년 보다 0.4%p 낮은 5.3%로 이는 통일독일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 수준
- (정책방향)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화, 세계화, 기후변화 등과 같은 장기적 과제에 지원을 확대하고 포용적 성장에 중점
 - 또한 독일정부는 혁신적인 신생기업의 민간투자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첨단기술창업 투자펀드Ⅲ(High-Tech GründerfondsⅢ)³⁾ 신설

<표 2>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2016	2017	2018(전망)
실질 GDP 성장률	1.9	2.2	2.4
실업률	6.1	5.7	5.3

자료: 경제에너지부, *Jahreswirtschaftsbericht 2018*

1) 에너지경제부, 2017년 경제전망보고서(Jahreswirtschaftsbericht 2017) 2017.01.25.
https://www.bmwi.de/Redaktion/EN/Publikationen/annual-economic-report-2017.pdf?__blob=publicationFile&v=7

2) StWG: Gesetz zur Forderung der Stabilita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3) 첨단기술창업 투자펀드(HTFG): 독일 최대 창업투자 펀드로 2005년 설립 후 현재까지 약 460개 기업에 자금투자 및 경영노하우를 지원하며 펀드규모는 2017년 9월까지 약 3억 1천만유로를 목표로 하고 있음(BMWi, 2017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나. 재정전망

- '18년 예산안에 따르면, 독일은 긍정적인 경제추세와 낮은 이자비용으로 낙관적인 재정상황 지속될 전망
 - (재정지출) '18년 예산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3,375억 유로이며, '21년에는 3,568억 유로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금번 예산안은 연구·인프라, 안보에 중점
 - (재정수입) '18년 재정수입은 3,375억 유로(균형재정 유지)이며 '21년까지 점진적인 세수증액을 통해 3,568억 유로 수준으로 증가시킬 계획
 - (구조적 재정수지) 재정균형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
 - (국가채무) EU의 안전 및 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따라 2020년까지 GDP 대비 60% 이내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18년 예산안에서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18년 63.25%, '19년 60.5%로 전망

<표 3> FY2018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단위 : 억 유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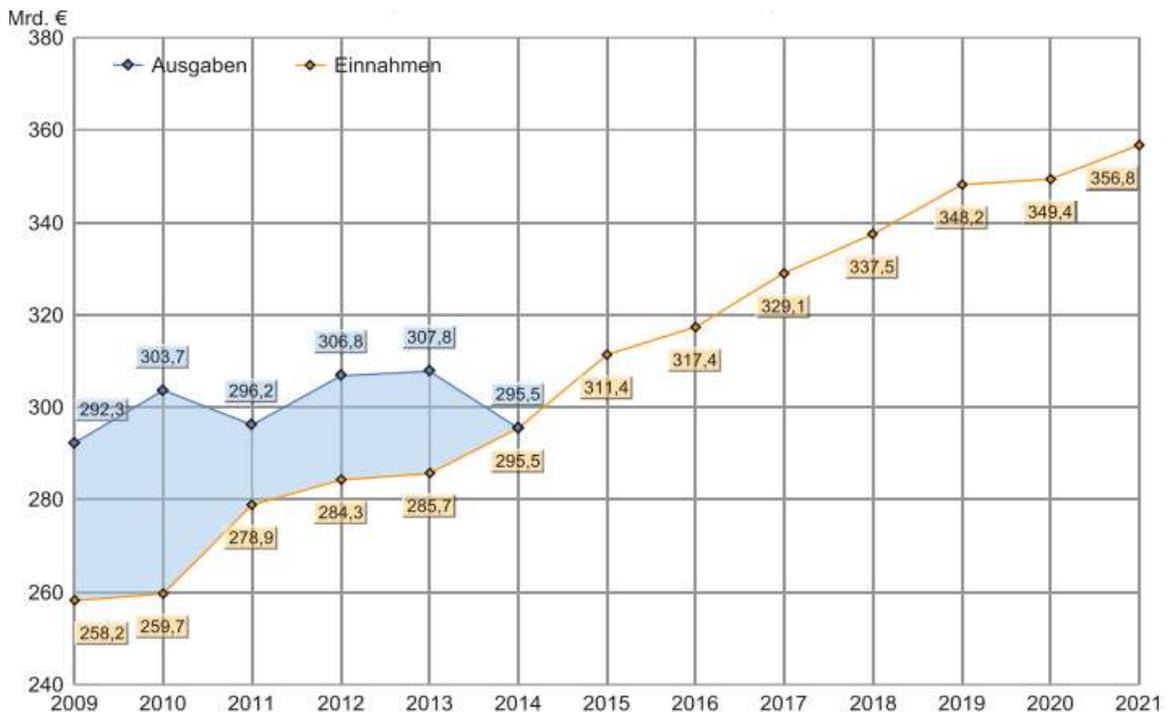
	2017	2018 (정부안)	중기재정계획		
			2019	2020	2021
재정지출	3,291	3,375	3,482	3,494	3,568
전년 대비 증감률(%)	3.8	2.6	3.2	0.3	2.1
재정수입	3,291	3,375	3,482	3,494	3,568
조세수입	3,010	3,088	3,218	3,271	3,416
세외수입	281	287	264	223	152
신규차입	0	0	0	0	0

자료: 연방재무부, *Bundshaushalt 2017 und Finanzplan bis 2021* (2017. 07)

2. 예산기조

- 교육 및 연구, 안보, 교통인프라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경제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화 프로그램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계획
 - (성장) 금년 교통인프라에 약 142억 유로, 교육 및 연구에 176억 유로를 지출할 계획
 - (재정건전화) '14년에 달성한 재정균형은 '21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국가채무는 '17년 GDP대비 66%에 도달하였고 안정 및 성장협약에 따라 '20년 50%대로 진입할 예정
 - (난민지원) 비상사태 예방, 지방재정지원, 사회통합 등 난민 관련 지원에 214억 유로를 지출 할 계획

[그림 1]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간 격차



주: Ausgaben(지출), Einnahmen(수익)

자료: 연방재무부(2018) Finanzbericht 2018 p. 15

<참고 2> FY2017 잠정결산

□ 재무부, FY2017 잠정결산 발표(2018.1.12.)⁴⁾

- (재정지출) 2017년 재정지출은 3,310억 유로로 기존 지출목표대비 19억 유로 상회
- (재정수입) 조세수입이 목표치를 상회하면서 3,310억 유로 기록, 이는 EU 자체수입이전, 소득세, 법인세 등의 증가로 목표치 대비 83억 유로 상회
- (재정수지) 구조적 재정수지는 GDP 대비 0.1% 적자를 기록, 이는 채무 제한법상⁵⁾ 나타나 있는 내용을 만족하는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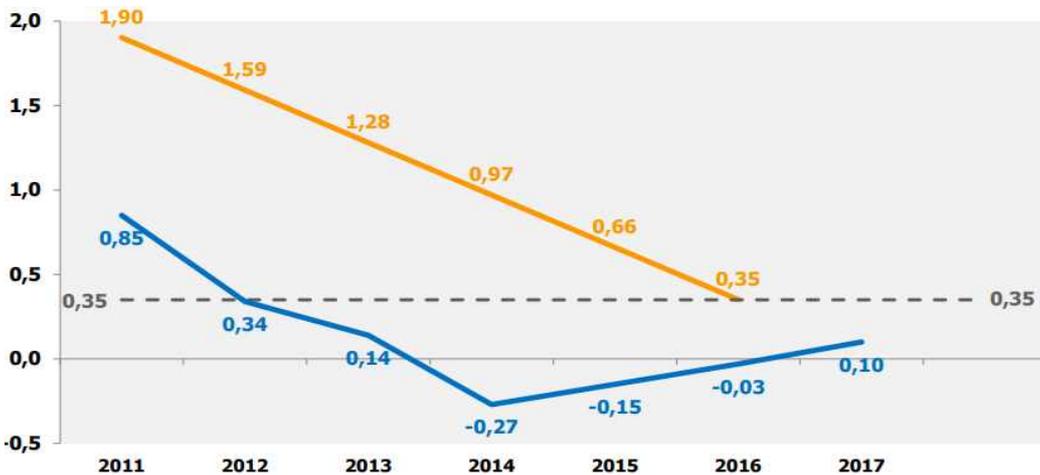
<표 4> FY2017 잠정결산

(단위: 억 유로)

	2017(목표)	2017(잠정)	목표치 대비 차이
재정지출	3,291	3,310	+19
재정수입	3,297	3,310	+19
조세수입	3,010	3,094	+83
세외수입	213	217	+0.3
예비비	67		-67
신규차입	-	-	-

자료: 연방재무부,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8.01.18

[그림 2]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추이(GDP 대비 %)



— 2010년 여름에 설정된 적자감축 목표
 - - - 채무제한법 상의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목표(2016년부터 GDP 대비 0.35%이하 달성)
 — 2014~16: 흑자. 2017: 잠정적자

자료: 연방재무부,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8.01.18

3. 예산안

가. 재정수입

- '18년 연방정부의 재정수입은 '17년 대비 2.5% 증가한 3,375억 유로 편성
 - (조세수입) 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가 크게 증가하여 '18년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0.26% 증가한 3,088억원 유로 규모임
 -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수수료와 요금, 자산운용수익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7년 대비 35.07% 증가한 285억 유로 규모임

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동향 2018.1 No.1」, 2018.1

5) Schuldenbremse(Debt Brake): 2016년부터 연방정부의 구조적 재정적자는 GDP의 0.35%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주정부에 대해서는 2020년에 구조적 균형예산을 이루어야 함(참고: 「정책분석 14-03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 사례」,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p.161)

<표 5> 항목별 재정수입

(단위 : 억 유로, %)

	2017 (A)	2018 정부안 (B)	증감률 [(B-A)/A]
조세수입	3,080	3,088	0.26
소득세 ¹⁾	1,070	1,111	3.83
소득세·법인세 ²⁾	261	280	7.28
부가가치세	1,130	1,163	2.92
수입부가가치세	19	20	5.26
담배세	142	141	-0.70
코냑세	21	21	0.00
에너지세	318	317	-0.31
전기세	66	66	0.00
기타연방세	53	-29	-154.72
세외수입	211	285	35.07
재정수입	3,291	3,375	2.55

주: 1) 해당 소득세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분과 연말정산분을 의미

2) 해당 소득세는 분리과세분과 이자원천징수분을 의미

자료: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18*, 2017.8, p.71-72

나. 재정지출

□ FY2018 예산안의 총재정지출은 '17년 대비 2.5% 증가한 3,375억 유로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21년까지의 재정계획에서는 내무, 외무, 개발협력에 중점을 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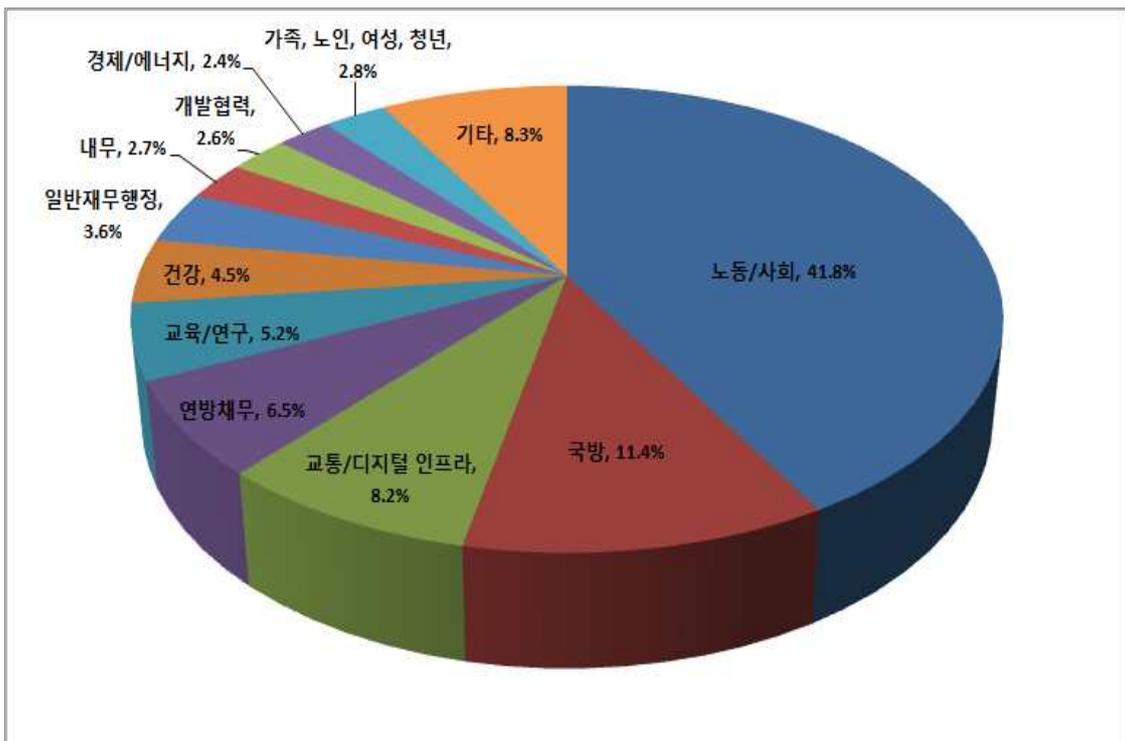
- (노동사회부) 연금보험(Rentenversicherung)과 구직자 기초보장이 각각 26억, 6억 유로 증액되어 전년대비 2.4% 증액된 1,409억 유로로 편성
- (내무부) 연방경찰(Bundespolizei) 및 연방형사청(Bundeskriminalamt)의 지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한 92억 유로 편성
- (경제에너지부) 디지털 아젠다 2025(Digitalen Strategie 2025)⁶⁾ 초소형 전자공학

6) 디지털 아젠다: 독일정부는 2014년에 도입된 디지털 아젠다 프로그램은 독일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 부가가치 창출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성장을 목표로 함(BMVI, 2016)

분야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R&D 투자 강화, 스타트업 지원 등에 초점, 전년대비 3.3% 증액된 79.8억 유로 편성

- (국방부) 군수장비 유지보수 및 국방인원 보충을 위해 전년대비 4%증액된 385억 유로로 편성하였고 '21년 424억 유로로 증액할 계획
- (교육연구부) 고등교육협약(Hochschulpakt)⁷⁾에 22억 유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 0.4% 감액된 176억 유로 편성, 이는 2005년 대비 27% 증액된 수치임
- (경제협력개발부)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금년 87억 유로 편성, 이는 '15년 대비 35% 상승한 수준
-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아동양육수당(64억유로), 아동복지(4천5백만유로)를 확대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0.6%(0.6억 유로) 증액된 96억 유로 배정

[그림 3] 2018년 예산안 분야별 지출비중



자료: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18, 2017.8, pp. 21

7) 고등교육협약 2020(Hochschulpakt 2020): 고등교육기관이 지역수요에 맞춰 학습여건과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이며, 2015~2020년간 140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연방재무부, 2018 & 박동, 2016)

<표 6> 부문별 재정지출

(단위: 천 유로, %)

구분	2017 (A)	2018 정부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대통령실	36,535	39,456	2,921	8.00
연방하원	870,237	884,431	14,194	1.63
연방상원	28,494	30,444	1,950	6.84
총리실	2,798,010	2,914,180	116,170	4.15
외무부	5,232,408	5,023,465	-208,943	-3.99
내무부	8,977,588	9,223,613	246,025	2.74
법무부	838,622	768,561	-70,061	-8.35
재무부	6,193,961	6,331,800	137,839	2.23
경제에너지부	7,734,979	7,986,835	251,856	3.26
식품농업부	6,002,552	5,807,144	-195,408	-3.26
노동사회부	137,582,419	140,939,729	3,357,310	2.44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부	27,911,432	27,826,852	-84,580	-0.3
국방부	37,004,839	38,492,845	-84,580	4.02
보건부	15,159,227	15,174,627	15,400	0.1
환경부	5,621,259	5,864,195	242,936	4.32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9,523,221	9,584,787	61,566	0.65
헌법재판소	31,564	30,904	-660	-2.09
회계감사원	150,927	152,966	2,039	1.35
자료보호 및 정보자유를 위한 연방위원회	15,395	17,773	2,378	15.45
경제협력개발부	8,541,040	8,700,000	158,960	1.86
교육연구부	17,649,867	17,583,415	-66,452	-0.38
연방채무	19,991,040	21,920,425	1,929,385	9.65
일반조세행정	11,204,384	12,201,553	997,169	8.9
재정지출	329,100,000	337,500,000	8,400,000	2.55

자료: 연방재무부, *Hausaltsgesetz 2018*, 2017.8, pp. 28

<표 7> 2016-2021 분야별 주요 연방지출

(단위: 백만 유로)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회보장	159,964	169,813	173,107	177,184	181,614	185,816
국방	29,530	31,320	32,840	34,243	35,527	36,669
영양·농업·건강	1019	1467	1295	1240	1243	1243
경제·에너지	5,213	6,991	6,463	6,896	6,614	5,529
교통	23,562	26,068	26,237	26,323	24,489	25,112
건설	2,203	3,058	3,008	2,879	1,282	1,193
연구·교육·문화	2,244	2,582	2,647	2,596	2,533	2,502
환경보호	1,278	1,455	1,731	1,722	1,754	1,768
스포츠	168	168	165	164	167	164
내무·이민	5,548	6,333	6,563	6,440	6,459	6,438
경제협력개발	7,732	8,501	8,648	8,634	8,598	8,555
일반재무	26,485	27,602	29,905	29,397	29,788	30,802
기금	4,309	892	2,950	3,357	3,202	3,202

자료: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18, 2017.8, pp. 21-23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 (교육·연구) 첨단기술발전, 응용과학연구, 우수대학육성, 직업훈련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교육연구 예산은 '16년 이후 GDP 대비 3%를 차지함⁸⁾)
 - (첨단기술전략) 독일의 첨단기술전략(Hightech-Strategie für Forschung und Innovation) 예산은 '13년 대비 25% 증액되었으며 디지털화, 초소형전자공학, 에너지, 보건 연구 등에 초점
 - (초소형 전자공학) '25년까지 유럽의 전자제품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13년 5월 초소형 및 나노전자 유럽집행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독일정부는 '15~'20년 동안 17억 유로의 펀드 조성
 - (응용과학 연구) 대학에 대한 응용과학 연구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으로의 지식 및 기술이전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된 프로그램으로 '05년 1,050만 유로로 시작된 펀드규모는 '17년 5,500만 유로로 확대됨
 - (우수대학 육성정책) 우수대학육성정책(Excellence Strategy) 프로그램¹⁰⁾ 지원을 위해 매년 5.3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
 - (직업훈련) 디지털 미디어분야 관련 직업훈련 4.0(vocational Training 4.0) 지원 확대
- (인프라 투자) '18년 연방투자지출은 364억 유로이며 교통 관련 분야에 전년대비 14억 유로 증액된 142억 유로로 지출계획이며 이는 '14년 대비 42억 유로 증액
 - (지방투자촉진) 지방투자촉진기금은 전년대비 두 배 상승한 70억유로로 '22년 까지 지방 교육인프라의 현대화, 병원, 도시개발을 위해 사용될 예정

8) 연방교육연구부, 2018년 교육연구부예산 설명자료

<https://www.bmbf.de/de/zukunftsinvestitionen-in-bildung-und-forschung-4408.html>

9) 연방경제에너지부(2017) National Reform Programme

10) 우수대학육성정책(Excellence Strategy): 독일은 '18년 대학의 첨단연구 지원을 위해 동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연간 5.3억유로(연방정부 75%, 지방정부 25% 지원)를 지출할 계획(연방교육연구부, 2018)

- (광대역 인터넷) 독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일환으로 연방정부 광대역 펀드 프로그램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할 계획
- (민간기업 위임) 연정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운영, 유지보수, 자금조달 및 용자를 관리하는 책임을 민간기업에 위임하는 법안 상정

나. 재정건전화

□ 2017년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 2017(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Aktualisierung 2017)* 채택

* EU 회원국들은 안정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따라 매년 4월 동 보고서를 EU집행위원회(EU Commission)와 경제재무이사회(ECOFIN Council)에 제출

- (재정전망) 2012년 달성된 일반정부 재정수지 균형이 2020년까지 유지되며, 국가부채 수준도 안정성장협약 상한선인 GDP대비 60%로 꾸준히 감소할 전망
 - (구조적 재정수지) 2016년 GDP 대비 0.5%의 일반정부 흑자를 달성
 - (국가채무) 2017년 국가부채는 전년 대비 2.05%p 감소한 66.25%로 전망되며 지속적인 채무감축 노력으로 2020년에는 부채비율이 50%대에 진입할 전망
- (향후과제) 통화정책, 난민, 재정관리, 교육·인프라 등에 대한 내용 제시
 - 유럽통화정책과 금리 정상화,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언급
 - 고령화로 인해 국가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사회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16년 사회지출은 전년대비 4.5% 증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조치 요구
 - 교육과 연구 및 인프라 투자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표 8> 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실질 GDP	1.9	1.4	1.6	1.5	1.5	1.5
재정수지	0.8	0.5	0.25	0.25	0.5	0.5
구조적 재정수지	0.8	0.5	0.25	0.25	0.5	0.5
국가부채	68.3	66.25	64	61.75	59.75	57

자료: 연방재무부,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Aktualisierung 2017*

□ 안정화위원회(Stabilitätsrates)*, 제 15, 16차 회의 개최¹¹⁾

* 동 위원회는 채무제한법의 실질적인 운용을 위해 ‘10년 조직되었고,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재정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며 통상 연 2회 개최됨

- 금번회의에서는 세계경제환경 및 동독의 재정건전화 정책에 대해 언급
 - (재정) ‘17년 독일의 구조적 재정수지흑자는 GDP 대비 1.25%를 달성할 전망
 - (주정부 건전화 계획) 위원회는 2017~2020년까지 브레멘 및 자알란트 등 2개 주에 대한 재정 건전화계획을 재수립¹²⁾
 - (통독연대협약) 동독 재건을 위한 통독연합연대Ⅱ(SolidarpaktsⅡ)¹³⁾은 만료시점인 2020년 이후에도 인프라보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

11) 연방재무부, Service,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7. 6. 22, 2017.12.11.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Oeffentliche_Finzen/Foederale_Finanzbeziehungen/Stabilitaetsrat/2017-06-22-15-sitzung-des-stabilitaetsrates.html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Oeffentliche_Finzen/Foederale_Finanzbeziehungen/Stabilitaetsrat/2017-12-11-16-sitzung-des-stabilitaetsrates.html

12) 안정화위원회는 연방 및 각 주의 재정상황을 평가하고, 연방·주정부에 대해 건전화계획을 수립. 4개 주(베를린, 쉐레스비히-홀슈타인, 자알란트, 브레멘)에 대한 건전화계획이 2016년까지 수립하였음. 이후 베를린, 쉐레스비히-홀슈타인 주는 건전화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브레멘, 자알란트 주는 향후 추가적인 재건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13) 통독연대협약Ⅰ은 동독 재건을 위해 5개 신연방주에 2004년까지 총 945억 유로를 지원하였고, 2005년 체결된 통독연대협약Ⅱ는 2019년까지 총 1,560억 유로를 지원하는 것임

다. 에너지 정책¹⁴⁾

- '18년 연방정부는 34.3억 유로 규모의 에너지 및 기후기금¹⁵⁾을 조성하여 에너지 효율적인 독일 건설을 가속화 할 계획
 - (수입) 연방정부 지원금 증액으로 전년대비 4.9% 상승
 - (지출) 에너지 효율적 도시 재개발(12.7억 유로) 및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18억 유로) 지출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

<표 9> 에너지 및 기후 기금 재정계획

(단위 : 억 유로)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입	32.1	42.1	42.1	42.7	42.6
탄소배출권 수익금	10.2	10.5	9.2	11.2	11.0
연방정부 지원금	7.2	28.0	32.6	31.5	31.5
준비금	14.7	3.6	0.3	-	-
지출	32.7	34.3	43.0	44.8	44.9
CO ₂ 저감 건물 보수지원 및 에너지 효율적 도시 재개발	8.7	12.7	16.2	16.8	16.8
전기자동차 프로그램	2.2	2.1	2.1	2.1	2.1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14.3	18.0	18.4	18.3	18.3
기후 변화 프로그램	3.2	3.3	3.3	3.3	3.3
에너지 집약 기업 보조	3.0	2.1	2.3	2.5	2.9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2	3.5	1.5	1.0	-
세계부족분	-1.6	-	-1.8	-1.4	-0.9
준비금전입	-	0.4	-	-	-

출처: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18*, pp. 49

14)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18*, pp. 52-53

15) 2011년 이후 에너지 및 기후기금(EKF; Energie- und Klimafonds)을 통한 안전하고 환경적인 재생 에너지전환 정책 시행

라. 지방재정 지원

□ 연방과 주의 재정관계 법안(Bund-Länder-Finanzbeziehungen) 법안이 '17년 6월 1일 통과

○ 이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가 매년 약 97억 유로의 재정구제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

- 지방정부의 책임성 및 연맹의 역할 강화를 위한 조치

- 2020년부터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구제를 확대하고 조세행정 및 교육투자 등에 대한 통제 및 감사 등을 통해 연방과 주의 재정관계 확립